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방향 연구

2011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변 선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경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 of Skin Care
through the Comparison of Usefulness and Recogni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변 선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경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 of Skin Care
through the Comparison of Usefulness and Recogni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변 선 주

변선주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변 선 주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발전은 현대인들에게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실제로 현대인들은 자신감 향상 및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에 있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 정보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 및 물질적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에 있어서 그 종류와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소 미비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비용 책정으로 피부 미용분야에 대한 왕성한 발달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장단점 및 주요 정보를 소개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인식도 및 개인별 성향을 파악하여 피부미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총 500명의 남성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에 걸쳐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al Data Editor (SPSS v. 18.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해 긍정적 또는 보통의 선호도를 보인 조사대상자는 각각 70%이상, 90%이상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1.6%(74명)를,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는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44.0%(91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성형 시술과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각각 부작용 66.4%(305명)과 관리 후 낮은 기대효과 34.2%(157명)로 나타났다. 부위별 시술의향 조사에서, 얼굴과 관련해서는 레이저 시술 25.4%(231명)과 피부 관리 20.4%(185명)가 높은 시술의향을 나타내었고 안면윤곽 수술 8.8%(20.5명)에 대한 의향이 가장 낮았다. 바디(팔, 가슴, 복부, 다리)와 관련해서는 슬리밍, 가슴탄력, 비만관리, 혈액순환, 독소배출, 장 기능 개선을 위한 마사지가 가장 높은 시술의향을 보였고, 가슴/확대 축소 수술 18.4%(76명) 및 지방 흡입과 관련된 시술들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분야 모두 자신의 만족감을 상승시키고,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시술·관리 후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저 시술과 같은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시술 흔적이 비교적 남지 않는 시술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몸에 비교적 큰 시술 흔적은 남기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본격적인 미용성형 차원에서의 시술들은 낮은 선호도를 가졌으며, 오히려 꾸준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관리나 마사지와 같은 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덜한 피부미용 차원에서의 시술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피부미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리 시연회를 개최하여 피부미용의 긍정적 인식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 피부미용 시술 후 마사지의 효용성(외모 개선, 건강관리, 깨끗한 이미지, 젊음유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마사지 관리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방흡입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술을 대체하기 위해 피부미용의 비만관리 분야의 강점(혈액순환, 안전성, 신체 신진대사증진, 신경이완, 스트레스완화 등)을 부각시키고 확실한 효과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관리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주요어】 : 미용성형,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마사지, 재생관리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가설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미용성형	4
1. 미용성형의 정의와 효용성	4
1) 미용성형을 통한 안면 성형	4
2) 미용성형을 통한 얼굴 관리	7
3) 미용성형을 통한 바디 성형	9
2. 미용성형의 한계점	10
제 2 절 피부미용	11
1. 피부미용의 정의와 효용성	11
1) 피부미용을 통한 얼굴 관리	12
2) 피부미용을 통한 바디 관리	14
2. 피부미용의 한계점	15
제 3 절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16

제 4 절 선행연구	17
1. 미용성형의 인식도에 관한 선행 연구	17
2. 피부미용의 인식도에 관한 선행 연구	19

제 3 장 연구방법 20

제 1 절 연구대상자 및 기간	20
제 2 절 연구도구	20
제 3 절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1

제 4 장 연구결과 22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22
제 2 절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도	24
1. 성별, 연령, 직업, 수입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선호도 비교	24
2.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 이유	26
3. 미용성형에 대한 부정적 이유	27
4.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비교	28
5. 병원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	29
6.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30

제 3 절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도	31
1. 성별, 연령, 직업, 수입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선호도 비교	31
2. 피부미용에 대한 긍정적 이유	33
3. 피부미용에 대한 부정적 이유	34
4. 피부미용 경험 유무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	35
5.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	36
6.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37
제 4 절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인식도 비교	38
1.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절대적 선호도 비교	38
2.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공통적인 긍정·부정적 이유	39
3.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40
4.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41
5. 미용성형 시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2
6.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3
제 5 절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의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44
1.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4
2.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5
3.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6
4.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7
5.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8
6. 비용을 고려한 얼굴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0
7.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1
8.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2
9.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3
10.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4

제 5 장 결론 및 제언	56
---------------------	----

【참고문헌】	60
--------------	----

【부 록】	62
-------------	----

설문지	62
-----------	----

ABSTRACT	71
----------------	----



【 표 목 차 】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2
[표 2]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변수에 대한 미용성형의 인식	24
[표 3]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비교	28
[표 4]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변수에 대한 피부미용 인식	32
[표 5] 피부미용경험 유무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 비교	35
[표 6]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4
[표 7]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5
[표 8]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6
[표 9]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7
[표 10]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8
[표 11] 비용을 고려한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0
[표 12]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1
[표 13]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2
[표 14]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3
[표 15]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54

【 그림 목 차 】

<그림 1> 미용성형(좌)과 피부미용(우)의 분야들 간의 포함관계	16
<그림 2>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 이유	26
<그림 3> 미용성형에 대한 부정적 이유	27
<그림 4> 병원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 비교	29
<그림 5>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비교	30
<그림 6> 피부미용에 대한 긍정적 이유	33
<그림 7> 피부미용에 대한 부정적 이유	34
<그림 8>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 비교	36
<그림 9>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비교	37
<그림 10>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절대적 선호도 비교	38
<그림 11>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40
<그림 12>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41
<그림 13> 미용성형 시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2
<그림 14>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43
<그림 15>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4
<그림 16>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5
<그림 17>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6
<그림 18>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47
<그림 19>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49
<그림 20> 비용을 고려한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 50	
<그림 21>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	51
<그림 22>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 52	
<그림 23>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 53	
<그림 24>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 5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미(美)를 추구한다. 아름다움의 개념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서 내용과 기준이 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생각을 사로잡으며, 감정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것”(Etcoff, 1999: 43)임에는 분명하다.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미(美)를 추구하며, 특히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을 중요시한다. 물론 내적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자신의 가치를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멋진 의복과 화려한 얼굴 화장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외모를 본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용성형(Aesthetic, Cosmetic Plastic Surgery)과 피부미용(Skin Care and Cosmetology)의 등장을 가져왔다.

6-7세기경 인도에서는 전쟁 포로나 죄인의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때 최초로 이마의 피부를 이용한 코 재건성형수술(Reconstructive Plastic Surgery)이 시행되었다. 현대적인 의미를 가진 성형수술은 19세기 이후 발전되기 시작하여 미국 최초의 성형외과 의사인 Dr. John Peter Mettauer가 언청이 수술을 집도한 후 전쟁으로 인한 외모 복원술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획기적인 성형수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미용성형은 손상된 외모를 복원하고 그 기능을 되살리는 재건성형과는 달리,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타고난 신체부위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용성형의 발달은 재건성형의 발달로 다져진 성형수술의 발달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외모 가꾸기라는 의도가 만나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피부미용은 1980년대 초 피부 관리의 새로운 직종이 우리나라

라 시장에 도입되면서 등장하게 되었고, 중반 이후 관련업종의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는 관련 교육 분야가 활성화되어 전문 학원 및 대학, 학회 등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현재는 피부미용이 보편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발전은 현대인들에게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실제로 현대인들은 자신감 향상 및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증가로 면접 시 호감 획득의 목적과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 및 심리적 만족을 위해 외모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미용성형에 있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 정보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 및 물질적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은 그 종류와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소 미비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비용 책정으로 왕성한 발달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장단점 및 주요 정보를 소개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인식도 및 개인별 성향을 파악하여 피부미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미용성형 및 피부 관리 마사지에 국한된 연구를 서로 분리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미용성형과 피부미용 간의 관계를 병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을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야별 인식도 및 상대적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용성형과 피부미용 간의 대체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시술 및 관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을 병행하기보다는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두 분야별 차이점을 비교 연구 함으로써, 비용을 고려하여 분야를 선택할 경우나, 미(美)를 추구하는 유사업종 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경우,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의 중점 육성 분야를 판단 시에 보다 명확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주요 정보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둘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개별 장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 셋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각 분야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미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본다.
-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피부미용 관련 연구 및 산업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

제 3 절.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기대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미용성형보다는 피부미용을 비교적 선호할 것이다.
- 가설 2. 시술·관리 경험이 있는 설문대상자는 미용성형/피부미용에 대한 긍정/부정이 명확할 것이다.
- 가설 3. 얼굴 관련 시술·관리에서는 레이저 후 재생 피부 관리, 마사지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 가설 4. 바디 관련 시술·관리에서는 지방흡입과 지방 분해 주사 보다는 복부 및 다리의 전반적인 슬리밍 및 비만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 가설 5. 소요비용을 고려할 경우 저렴한 시술·관리를 선택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미용성형

1. 미용성형의 정의와 효용성

희랍어 ‘plastikos’에서 유래한 ‘plastic’ 은 ‘마음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미용성형으로 영어로는 ‘plastic surgery’ 또는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로 즉 외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분을 고치거나 만듦이라는 뜻을 가진다.

성형외과를 구분할 때 일반 성형외과(General Plastic Surgery)는 재건성형(Reconstructive Plastic Surgery)과 교정성형(Corrective Plastic Surgery)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를 미용성형(Aesthetic, Cosmetic Plastic Surgery)이라고 한다. 현재는 재건 수술보다는 미용성형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는 경향이 많고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이미희, 2001: 7).

선천적으로 불편했던 몸이나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 변형된 신체의 기능과 형태를 정상에 가깝도록 복원시켜 보다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재건성형이라 한다면 미용성형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와 노력으로 미용을 위해 병원에서 시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쌍꺼풀, 코높임 등의 얼굴성형과 가슴, 복부 등의 신체부위 성형, 지방흡입, 기미, 주근깨, 박피 레이저, 기타 주사요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미용성형수술이란 단순히 신체의 외부에 나타나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앞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누리는 데 있다.

1) 미용성형을 통한 안면 성형

(1) 눈(쌍꺼풀, 안검하수, 앞트임, 뒤트임)

크고 아름다운 눈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가지게 함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용성형이다. 쌍꺼풀은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이 쌍꺼풀 안으로 말려들어가면서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눈이 커 보이고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수술의 방법으로는 수술부위를 절개하는 절개법과 작은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부분 절개법 및 절개하여 수술하는 매몰법이 있다.

또한 쌍꺼풀과 함께 시행하는 안검하수와 눈매교정술이 있다. 안검하수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상안 검거근의 근력이 약하여 눈을 잘 뜨지 못하며, 눈동자가 덜 노출되기 때문에 졸리는 눈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눈을 크게 뜨기 위해 이마근육에 힘을 주게 되므로 주름이 많이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러한 눈에 안검하수와 눈매교정술이 주로 시술된다.

앞트임/뒤트임 수술은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넓거나 눈이 작은 사람이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눈앞에 눈 꼬리 부분을 덮고 있는 몽고주름을 제거하여 눈을 크게 만드는 것과 눈 꼬리 쪽을 교정하여 더 길게 만들고 올라간 눈 꼬리를 약간 내려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코

코는 얼굴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으로 눈과 함께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쌍꺼풀 수술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성형수술의 하나이다. 사람마다 코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높이는 수술만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얼굴을 위해 길이, 높이, 각도와 이마에서 입술까지 이루어지는 곡선을 고려하여 콧대를 올리거나 콧볼을 줄이는 등의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다. 특히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의 코는 콧대가 낮은 편이라 콧대를 높여주는 용비술에는 실리콘과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여 지고 코끝에는 자가지방, 귀연골 등으로 낮은 콧대를 세우는데 사용한다.

(3) 동안수술(보톡스, 필러)

동안수술은 흔히 성형이라고도 불리며 가볍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톡스, 자가 지방 및 필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얼굴에 변화를 주게 되는 방법이다.

보톡스는 미국 제약회사 엘러간(Allergan Inc.)의 근육수축 주사제의 상표명으로 보툴리눔 독신(botulinum toxin)을 정제하여 만든 것으로 보툴리눔 독신이란 주로 상한 통조림에서 생리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박테리아가 만든 독소를 말한다. 1987년 Theodore Thomoich가 보톡스 A를 눈 주위가 떨리는 안검경련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미간부위에 독소를 주사한 후 미간부위의 주름 선이 아주 부드러워 지고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처음 발견하여, 미용목적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배근혜, 2003: 2). 이 보톡스를 근육에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 움직임을 일정 시간 완화시켜 4~6개월 정도 지속되게 하는 요법으로 주름이나 사각턱, 근육의 축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칼을 대지 않고 짧은 시간을 들여 시술 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보톡스는 미간이나 이마 주름을 펴는데 사용하고 사각턱 근육을 축소시키는 데에도 사용하여 사각턱을 가름하게 만드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필러(Filler)란 얼굴의 여러 부위에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만을 사용하여 단시간에 시술 하는 방법이다.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주사성형이라 즉각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나타난다. 얼굴 여러 부위에 볼륨을 증가시키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PAAG(polyacrylamide gel), PMMA(polymethyl methacrylate)등의 성분 등의 볼륨을 보충하는 생체물질을 채워주는 것이다. 시술 후 1개월 정도는 과도한 효과를 보이나 6~12개월 사이에 서서히 체내에서 흡수되어 코, 눈밑 애교, 입술, 주름 등에 간단히 시술 할 수 있다.

(4) 안면윤곽 수술(양악수술, 사각턱)

미의 기준이 시대를 흐르며 바뀌고 있는 가운데 현대의 미인의 기준으로 얼굴선이 달걀 모양처럼 가름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서양인에 비해 크고 넓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가름하고 작은 얼굴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각턱은 하악각이 넓은 경우나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양으로 사각턱 축소술은 하악각 각 부위의 뼈를 절제하여 윤곽을 작고 가름한 얼굴로 만드는 수술로 입안의 절개를 통해 하악각 부위와 함께 귀밑에서 턱선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수술이다. 이는 사각턱 축소술과 v라인 성형의 수술로 얼굴의 아래쪽에 있는 하악골과 저작근인 교근의 각진 부위를 제거하고 다듬어 매끄러운 안면 윤곽선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용성형을 통한 얼굴 관리

(1) 박피술

박피의 사전적 의미는 ‘껍질 벗기기’라는 뜻으로, 박피술(Peeling)은 특수 약물이나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인위적으로 깊게 각화시키는 것이다. 피부를 인위적으로 각화시켜 손상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어 영양공급이 원활해져 진피 조직이 재배열되는 재생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기존 피부에 남아있던 색소침착이나 주름 등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화학적 박피, 크리스탈 가루나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한 물리적 박피술, 레이저 박피술 등이 있으며 정도에 따라 얇고 깊은 박피를 할 수 있다.

(2) 레이저 박피술

레이저(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박피술은 1917년 Albert Einstein 의 양자이론을 근거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피부박피술과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술에 이르기까지 치료 범위가 다양해 졌다(계영철, 2002: 1-6).

이산화탄소(CO₂)레이저는 0.5mm이하의 혈관을 응고시킬 수 있어 박피 시 출혈이 없으며 임파선을 열어주는 수술 후 부종이 적고 신경 끝을 차단하여 통증이 적은 방법이다. 박피 후 다른 방법보다 창상 치유가 일찍 일어나며 수술 수 처치가 간편하여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르다(Reed, 1997: 643-648).

레이저 빛이 피부의 조직에 흡수되면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작용을 나타내는데, 피부조직에 열에너지가 전달되면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50℃이상에서는 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50℃이하에서는 조직의 변성이 유발되어도 정상상태로 환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피부의 표피층을 탈락시키고 진피 층에 열 손상을 입힌 후 콜라겐의 재생반응을 촉진시켜 노화피부, 여드름 흉터, 주름 제거 등에 적합하다(신진영, 2009: 25).

(3) IPL

IPL은 Intense Pulsed Light의 약자로 선택적 광열 용해라는 뜻을 가지고 피부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이다. 표적이 되는 것만을 파괴해 가능한 한 주위의 정상조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력한 파장의 빛을 주기적으로 방출시켜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파장의 강한 빛을 피부에 나눠서 도달하게 함으로 복합적인 파장의 강한 빛에 의해서 혈관, 주근깨, 기미 등의 색소질환이 좋아지고 탄력을 얻게 된다. 470~950nm의 빛이 방출되어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빛의 파장이 클수록 피부의 투과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IPL은 낮은 파장 이하의 빛을 걸러냄으로 표피손상을 줄이면서 피부 깊숙이 효과를 주어 기미와 주근깨 등의 색소성 질환과 모공, 확장된 혈관, 노화된 피부 및 제모에도 세안과 화장에 지장 없는 간편하고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원윤경 외, 2006: 218-219).

3) 미용성형을 통한 바디 성형

(1) 지방 흡입

지방흡입을 통한 바디성형은 과다하게 지방이 쌓인 부분에서 혈관이나 신경, 림프관에는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하지방을 압을 이용해 체 외로 빨아내어 몸매를 가다듬는 것을 말한다. 1960년 독일 Cologne에 Schrudde가 최초 시행한 방법으로 지방조직을 깎아서 음압으로 빨아내는 원리를 이용했다. 그 후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좌우 움직임 근막위에 있는 피하지방을 고르게 잘라 빨아내는 방법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흡입을 통한 수술 부위는 복부, 팔, 허벅지, 종아리 등에 적용 할 수 있다.

(2) 주사요법

비만주사요법의 종류로는 카복시테라피, 메조테라피, 지방 분해주사 등이 있다. 지방세포 수용체에 작용하여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역할로 저장성 용액의 특성상 삼투압에 의해 지방세포가 파괴되어 지방세포내의 내용물인 중성지방이 혈액 속으로 쉽게 빠져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지방분해주사는 아미노필린, 아이소프로테레놀 등을 특정부위에 주사해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말하며, 카복시테라피는 인체에 무해한 지방 분해가스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해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세포를 직접 파괴시켜 주머니처럼 뭉쳐서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상태인 셀룰라이트를 풀어주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시술시간이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메조테라피는 1952년 프랑스 의사 Dr .Pistor에 의해 개발된 치료방법으로 부분적인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장애로 인해 생긴 셀룰라이트 부분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여 지방분해, 배출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2. 미용성형의 한계점

성형 의료산업의 급속한 확장 및 발달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연예인의 성형이 많이 전해지면서 한국사회는 성형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시장은 광범위해지고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용성형을 쉽게 생각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듯 쉽고 간단하게 예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체는 도자기 빗듯 간단하게 반죽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 등의 시술 과정에 인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면역거부반응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는 뉴스 사례로도 접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용성형을 부추기는 매체나 병원에서는 실제 부작용에 대한 사례 및 정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불특정 다수(신문의 독자들이든 인터넷 네티즌들이든)에게 미용성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료전문가들은 특정 성형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제반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임인숙, 2010: 47).

성형중독과 같은 강박증이 확산되고 있고, 성형수술 실패를 비판한 여성들이 동반자살(한국일보, 2003.1.20, 2003.4.19)을 하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의 효과나 편의성만을 부각시켜 고객 끌기에 열중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용성형이란 상품의 부작용이나 미용적 효과의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등을 돌리게 할 광고들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용성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용성형수술은 질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술을 원할 경우 사전에 약간의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시중에는 성형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잡지나 신문 등의 성형관련 기사

나 컬럼, 광고 등을 통해서도 기본 상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100% 믿고 현혹되어 수술을 결정해서는 안된다(한국의료관광협회, 문화관광부허가 제 2008-54호).

또한 일반인의 월급으로 시술하기에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비용으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의 비용을 소요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미용성형을 위한 성형계가 나오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대출을 하기도 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점도 나오는 실태이며 성형 중독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경제적인 위험도 발생 할 수 있다.

제 2 절. 피부미용

1. 피부미용의 정의와 효용성

피부미용을 의미하는 에스테틱(Esthetic)은 미학, 심미, 미의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용어는 약 200년 전 독일의 미학자 바움갈텐(A.G Baumgarten, 1717~1762)이 미는 인간에게 만족감과 쾌감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감성 미학적 생각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발을 제외한 얼굴과 신체 피부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며 얼굴과 신체 미용 상의 문제점들을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핸드테크닉 및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전신미용술을 의미한다(김명숙, 2003: 130).

오늘날 피부미용 영역은 병원에서의 성형 수술 후 재생 관리를 위한 마사지 및 피부 관리실에서 실행하는 모든 관리방법을 의미하며 피부 관리, 체형관리, 왁싱(제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술이다.

1) 피부미용을 통한 얼굴 관리

(1) 피부 관리

피부미용을 통한 얼굴관리에는 마사지(Massage), 즉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로 피부를 일정한 방식과 방법으로 쓰다듬기, 문지르기, 주무르기, 반죽하기 등의 물리적 자극을 주어 신체조직의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매뉴얼 테크닉을 포함하여 화장품의 사용과 더불어 피부를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개선시키도록 도우는 모든 방법으로써 단순히 손을 이용한 관리 뿐 만 아니라 클렌징, 각질제거 및 각종 제품과 기기를 사용하여 여드름관리, 미백관리, 보습관리, 탄력관리 등의 영양 투입, 보호 관리도 포함한다.

피부는 기본적인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연령이나 계절, 생활환경 및 조건에 의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주름이나 색소침착, 피부 건조 등의 문제점을 예방해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내면적인 자신의 개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피부가 지닌 기능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유지시켜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문주, 2006 :5).

(2) 경락 마사지(안면윤곽 개선)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이라고 하는 일종의 순환로가 마치 혈관모양으로 온 몸에 골고루 퍼져 나무와 같이 큰 줄기와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물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체로는 오장육부와 뼈에 연결되고, 밖으로는 근육과 피부, 체모뿐만 아니라 인체의 각 부위에 기와 혈을 유주(流注) 순행 시키고 이 기와 혈에 의해 생명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경락마사지란 기혈의 통로인 경락에 분포하는 반응점인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극함으로써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하는 방법이다.

경락과 경혈의 이론을 근거로 실시하는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인 경락 개념을 마사지에 연결시킴으로서 보다 체계화되었고, 일반적인 마사지의 개념을 뛰어 넘어 질병의 치료를 다양하게 응용되어 온 중재법이다. 실제로 얼굴과 몸에 경락마사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氣)의 순환이 잘되며, 기의 순환이 잘되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혈액순환이 잘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이 잘 배설되어 아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차영애, 2001: 158).

(3) 필링

① 약초필링

피부미용을 통한 얼굴관리에는 한방 약초가루를 이용하여 필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약초필링은 약초의 작읍 입자가 모공 속으로 침투해 노폐물을 제거하며 그 약제에 함유된 살리실산(salicy acid)등의 성분이 각질층에 자극을 주어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질층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래 필링(peeling)이란 피부의 죽은 각질층을 얇게 벗겨내 피부의 결을 말끔하게 정돈해 주는 시술로 이는 손상된 표피와 진피의 일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이성내, 2002: 42).

이러한 필링 이후 노화된 각질층도 제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세포주변의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한방 생약필링을 할 때에는 관리 전 후에 재생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필링의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주게 된다(장영아, 2006: 16).

안전한 천연성분으로 화학약품에 의한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시술시간은 15분 내외로 간단하고 시술 후 3일째부터 각질이 탈락되기 시작하여 보통 5일안에 완전히 제거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필링 효과를 볼 수 있다(윤영숙, 2002: 165).

② 해초박피

해초박피는 천연물질인 해초를 사용하여 각질탈락을 유도하여 성분적으로 화학적인 것이 아니라 천연의 식물에서 얻어지는 성분을 이용하기에 피부에 좀 더 친화적이다. 주요성분은 효소성분이 함유된 심해의 바다 속에서 채취된 내초식물과 사해의 미네랄, 미량원소들이 미세암석가루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천연필링이라는 장점 때문에 피부 손상부분이 최소화되고 피부를 복구시키는 약초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 건성 피부, 노화피부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김영미, 2003: 17).

(4) 재생관리

재생관리는 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 수술 등과는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며, 박피, 필링, 레이저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피부상태를 가급적 빨리 정상 상태로 회복되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온토포레시스, 초음파 영동법, 고주파기기, 비타민 투입, 스케일링 등을 시행하며 진정작용이 뛰어난 아줄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민감성 앰플이나 열에 의한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카모마일, 알로에 베라 같은 진정마스크, 콜라겐 벨벳 마스크, 쿨링 시트팩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며 보습효과를 주도록 하여 각질층의 수분과 진정작용을 하도록 한다.

2) 피부미용을 통한 바디 관리

과거 비만 관리는 대부분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 스스로 진행하여 비만관리실이 따로 있지 않았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면서 여성들에게 보편화된 비만에 대한 관심은 피부 관리와 비만관리의 형태가 결합된 피부비만 관리실을 탄생시켰다(이현진, 2011: 15).

피부미용을 통한 바디관리로는 마사지, 비만관리, 순환관리, 기기관리,

열관리 아로마요법, 슬리밍 화장품 요법 등이 있다. 이러한 관리들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손을 이용한 수기요법 마사지를 통해 비만, 순환관리를 들 수 있으며 부황이나 접시, 팔사 도구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브러시(brush)나 초음파(Ultrasound), 고주파(High-frequency)기기요법 등과 부황, 석션기(Vacuum Suction)등의 기구 및 기기를 사용하여 경근, 경락, 장부 마사지등의 방법들에 함께 사용한다.

현재 피부 관리실에서 시행하는 마사지의 종류로는 스웨디시 마사지(Swedish massage), 경락마사지, 일본식 지압 마사지(Shiatsu massage), 반사마사지(Reflexology), 림프드레나지(Lymphdrainage) 등이 있으며 특히 스웨디시 마사지는 피부표면과 근육에 쓰다듬기, 주무르기, 두드리기, 문지르기, 진동하기 등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근육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액순환과 근육이완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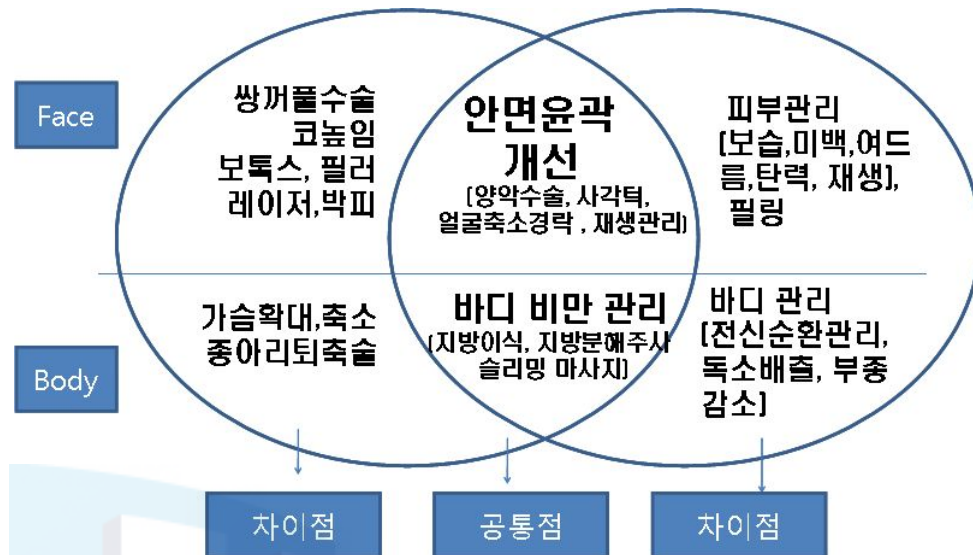
2. 피부미용의 한계점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활수준 향상 및 웰빙 문화의 바람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면서 피부 미용 산업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유명 프랜차이즈 및 개인 피부 관리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이 2010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 미용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증상은 물론 여드름, 염증, 화상, 피부 변색, 상처, 흉터 등의 다양한 증세를 호소했다고 하며 그 원인으로는 조사 대상 94명 중 41.5%(39명)가 피부미용에 사용한 화장품 등으로 인한 것과 피부미용 종사자 관리 미숙 또는 과실이 26.6%(25명)이었다. 그 외에도 피부미용서비스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색소 침착 등을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 아니므로 이를 치료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다소 미비한 효과를 들 수가 있다.

제 3 절.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 소개한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각 분야별 방법론과 기능적 특징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들 간의 포함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미용성형(좌)과 피부미용(우)의 분야들 간의 포함관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굴 성형 및 관리에는 양악 수술, 사각턱 수술, 쌍꺼풀 수술, 코높임 수술, 보톡스, 필러, 레이저, 박피 등의 미용성형 분야들과, 얼굴축소경락, 재생관리, 보습, 미백, 여드름 완화, 탄력, 피부재생, 필링 등의 피부미용 분야들이 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안면윤곽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분야들과 쌍꺼풀 수술과 같은 미용성형만의 기능을 가진 분야들, 보습과 같은 피부미용만의 기능을 가진 분야들로 나뉘어진다.

바디 성형 및 관리에는 지방이식, 지방 분해주사, 가슴확대/축소 수술, 종아리퇴축술 등의 미용성형 분야들과, 슬리밍 마사지, 전신순환(혈액순환) 관리, 독소 배출, 부종 감소 등의 피부미용 분야들이 있다. 이 둘도 역시

공통적으로 바디 비만 관리 기능을 가진 분야들과 가슴 확대/축소 수술과 같은 미용성형만의 기능을 가진 분야들, 전신순환관리와 같은 피부미용만의 기능을 가진 분야들로 나누어진다.

안면윤곽 개선 및 바디 비만 관리와 관련하여 미용성형의 분야들은 확실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긴 회복기간을 가져야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수해야한다. 안면윤곽 개선 및 바디 비만 관리를 위한 피부미용의 분야들은 미용성형에 비해 낮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저렴한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복기간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용성형과 피부미용 간의 공통적인 기능을 가진 분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서로 간에 기능적으로 차이나는 분야들은 각 분야만의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나 보완이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이라는 보다 진취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선행 연구

1. 미용성형의 인식도에 관한 선행 연구

임인숙(2004)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외모를 가꾸는 존재)과 외모차별 풍토가 한국 여대생들의 미용성형 경험과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479명의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첫째,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여성의 외모는 자본화될 수 있다’는 인식과 외모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외모 가꾸기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모차별 경험이었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연옥(2004)은 미용성형의 실태와 인식도를 알아보고,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매의사 결정 시 요

구되는 조건 및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도와 미용성형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가 높은 경우, 미용성형에 대한 의향성 및 수용성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2004)은 전북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도와 미용성형의 필요성 및 긍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답해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용성형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관한 조사에서는 피부와 눈에 관련된 미용성형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민영(2009)은 경기도에 위치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미에 대한 인식과 피부·체중조절·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및 관리 행동을 연구하였다. 미의식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조화, 얼굴, 몸매, 피부 관리를 중요시하였으며, 미의식이 낮을수록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저가의 제품이나 홈케어 방법을 선호하였고 간편하고 기본적인 피부 관리 행동을 보였다. 체중조절 행동은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정상 체중을 보인 반면, 스스로 살이 찘다고 인지하는 경향을 보여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미의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수술 의향을 보였으며, 미용성형을 외모를 개선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김봉인, 장서지(2010)는 미용성형 전후에 나타나는 신체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적 기준에 대한 관점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Naturalism 유형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형이며, Balance유형은 대칭 및 비율을 미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유형이며, Silhouette유형은 아름다움과 개인의 자질을 동일시하는 유형이며, Innocent유형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를 미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유형이다. 그 중 첫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 간의 상관 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 판단되었다.

2. 피부미용의 인식도에 관한 선행 연구

김복희, 남철현(1998)은 2,000명의 2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의식 행태와 건강관리측면에서의 피부미용지식, 화장형태, 피부질환경험, 피부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43.3%로 비교적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 상류층,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얼굴 화장정도는 젊을수록, 학생, 중졸이하, 중류층, 미혼자일 경우 옅게 하는 편이었고, 고졸, 직장인, 상류층, 독신자일 경우 짙게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53.1점으로 낮았으며 학력, 경제상태, 키, 아침화장시간, 안면마사지 횟수와는 정상관계를, 몸매와는 역 상관관계를 가졌다.

모정희, 송미라(2007)는 피부관리사를 대상으로 피부 관리 방식으로서의 아로마테라피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 시행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로마테라피의 활용 실태는 46%가 자주 사용, 48%가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활용 목적은 피부 관리였고 얼굴에 40%, 바디의 혈액순환과 독소배출에 55%의 활용도를 보였다. 아로마테라피 시행 후 관리사의 만족도는 69%가 대체로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향후 아로마테라피의 재이용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 이영익(2009)은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 상해 예방 및 경기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마사지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자의 55.4%는 스포츠 마사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사지를 통한 피로회복을 가장 큰 이용 이유로 답했다. 스포츠 마사지를 이용한 적이 없는 44.6%의 사람들은 스포츠 마사지에 대한 경험부족을 해당 마사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답했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90.6%가 스포츠 마사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50대의 경우 96.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총 500명의 남성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500부 배포하여 96.6%(483명)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그 중 3.4%(17명)을 제외한 설문지 총 91.8%(459명) 대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계치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다.

제 2 절.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9개의 문항들과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에 관한 절대적 인식도 및 상대적 인식도, 그리고 부위별 시술 의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32개의 문항들로 구성하였다.(총 41문항).

세부적으로는 미에 대한 관심도,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 경험 유무, 각 분야에 대한 긍정도 및 부정도, 각 인식도에 대한 이유, 부위별·시술 장소(병원, 피부 관리실)별·시술 종류별·비용을 고려한 시술 의향 등을 조사하였고, 특히 세부적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되고 정제된 표를 작성하여 조사결과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제 3 절.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al Data Editor (SPSS v. 18.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과 χ^2 (Chi-square),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공통적인 긍정적/부정적 이유와 미용성형, 피부미용 각각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미용성형과 피부미용, 두 가지 시술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5. 미용성형과 피부미용, 각각 시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6. 부위별 시술·관리에서의 가장 높은 시술의향을 보이는 시술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7. 부위별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의향 차이와 선호도 연구를 위해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8. 시술비용을 고려하였을 경우, 부위별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의향 차이와 선호도 연구를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77.6%(356명)는 여성, 22.4%(103명)는 남성이었고, 20대가 58.6%(26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25.9%(119명), 40대가 10.7%(49명)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 유무 결과 72.1%(331명)가 미혼, 27.2%(125명)가 기혼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38.1%(175명), 기독교 31.4%(144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문대에 재학 또는 졸업한 대상자가 전체의 54.7%(251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각각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한 대상자가 20.7%(95명), 고졸인 대상자가 15.3%(70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원, 주부 순으로 각각 13.3%(61명), 10.2%(47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에 대한 정보수단으로는 인터넷이 37.3%(17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친지의 경험이 29.2%(134명), 잡지 및 TV 광고가 20.0%(92명)였다. 피부 및 비만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피부관리실을 이용한 피부, 비만관리가 37.3%(171명)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 병원을 이용한 미용성형이 각각 28.3%(130명), 11.5%(53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103	22.4
	여성	356	77.6
연령	10대	6	1.3
	20대	269	58.6
	30대	119	25.9
	40대	49	10.7
	50대이상	14	3.1
	결측	2	.4

결혼유무	미혼	331	72.1
	기혼	125	27.2
	기타	3	0.7
종교	기독교	144	31.4
	불교	102	22.2
	천주교	24	5.2
	무교	175	38.1
	기타	14	3.1
	결측	3	.7
교육정도	중졸	70	15.3
	고졸	251	54.7
	전문대 재학/졸업	95	20.7
	4년제 대학 재학/졸업	37	8.1
	대학원 이상	3	.7
	결측	3	.7
직업	주부	47	10.2
	영업, 서비스직	39	8.5
	자영업	13	2.8
	학생	217	47.3
	전문직	45	9.8
	회사원	61	13.3
	기타	36	7.8
	결측	1	.2
수입정도	100 미만	242	52.7
	100~200	119	25.9
	200~300	49	10.7
	300~400	22	4.8
	400 이상	24	5.2
	결측	3	.7
정보수단	인터넷	171	37.3
	잡지 및 TV 광고	92	20.0
	친구, 친지의 경험	134	29.2
	병원 또는 피부 관리실	29	6.3
	기타	30	6.5
	결측	3	.7
피부 및 비만관리 방법	병원-미용성형	53	11.5
	피부 관리실- 피부, 비만관리	171	37.3
	식이요법	51	11.1
	운동	130	28.3
	관심 없음	50	10.9
	결측	4	.9
Total		459	100.0

제 2 절.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도

※ 서술의 편의성 및 피부미용과의 비교를 위해 병원에서 수행하는 피부미용 분야들(재생관리, 마사지)을 미용성형 분야와 함께 기술하였다.

1. 성별, 연령, 직업, 수입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선호도 비교

미용성형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변수에 대한 미용성형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별의 경우 미용성형에 대한 생각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이 59.4%(20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긍정적인 남성이 2%(2명)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변수에 있어서는 미용성형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표 2>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변수에 대한 미용성형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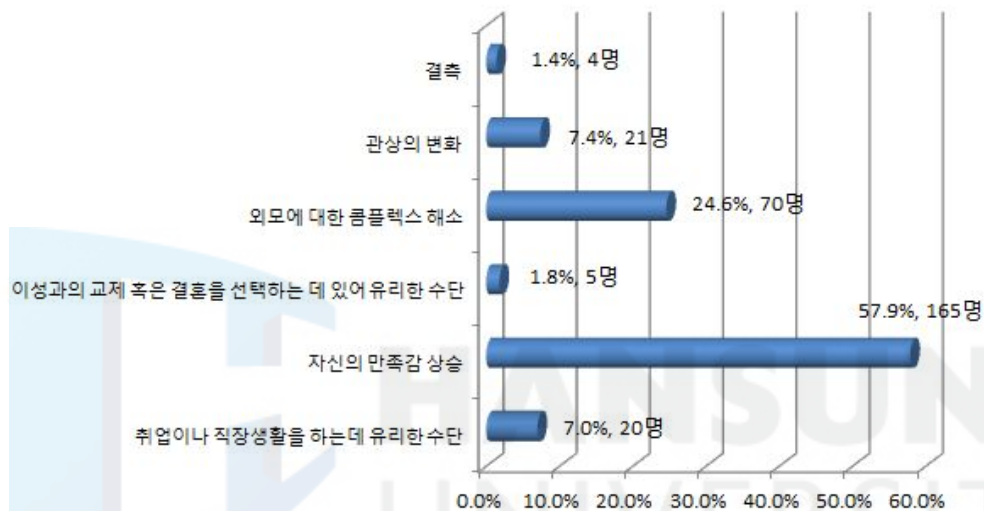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χ^2	p
성별	여성	N	34	208	73	29	6	27.737	.000**
		%	9.7	59.4	20.9	8.3	1.7		
	남성	N	2	42	34	18	6		
		%	2.0	41.2	33.3	17.6	5.9		
연령	10대	N	1	3	1	1	0	19.963	.222
		%	16.7	50.0	16.7	16.7	0.0		
	20대	N	26	143	68	19	6		
		%	9.9	54.6	26.0	7.3	2.3		
	30대	N	5	73	22	14	5		
		%	4.2	61.3	18.5	11.8	4.2		
	40대	N	3	24	12	9	1		
		%	6.1	49.0	24.5	18.4	2.0		
	50대이상	N	1	6	3	4	0		
		%	7.1	42.9	21.4	28.6	0.0		
직업	주부	N	3	27	10	5	2	27.842	.267
		%	6.4	57.4	21.3	10.6	4.3		
	영업,	N	2	22	9	4	2		
		%							

	서비스직	%	5.1	56.4	23.1	10.3	5.1		
	자영업	N	2	8	1	1	1		
		%	15.4	61.5	7.7	7.7	7.7		
	학생	N	25	112	55	14	6		
		%	11.8	52.8	25.9	6.6	2.8		
	전문직	N	2	26	9	7	0		
		%	4.5	59.1	20.5	15.9	0.0		
	회사원	N	1	35	15	8	1		
		%	1.7	58.3	25.0	13.3	1.7		
	기타	N	1	20	7	8	0		
		%	2.8	55.6	19.4	22.2	0.0		
	100 미만	N	25	128	59	18	7		
		%	10.5	54.0	24.9	7.6	3.0		
	100 - 200 미만	N	5	70	23	16	4		
		%	4.2	59.3	19.5	13.6	3.4		
수입 (만원)	200 - 300 미만	N	0	31	10	7	1	20.555	.196
		%	0.0	63.3	20.4	14.3	2.0		
	300 - 400 미만	N	2	10	5	3	0		
		%	10.0	50.0	25.0	15.0	0.0		
	400 이상	N	4	9	8	3	0		
		%	16.7	37.5	33.3	12.5	0.0		

** : $p < .01$

2.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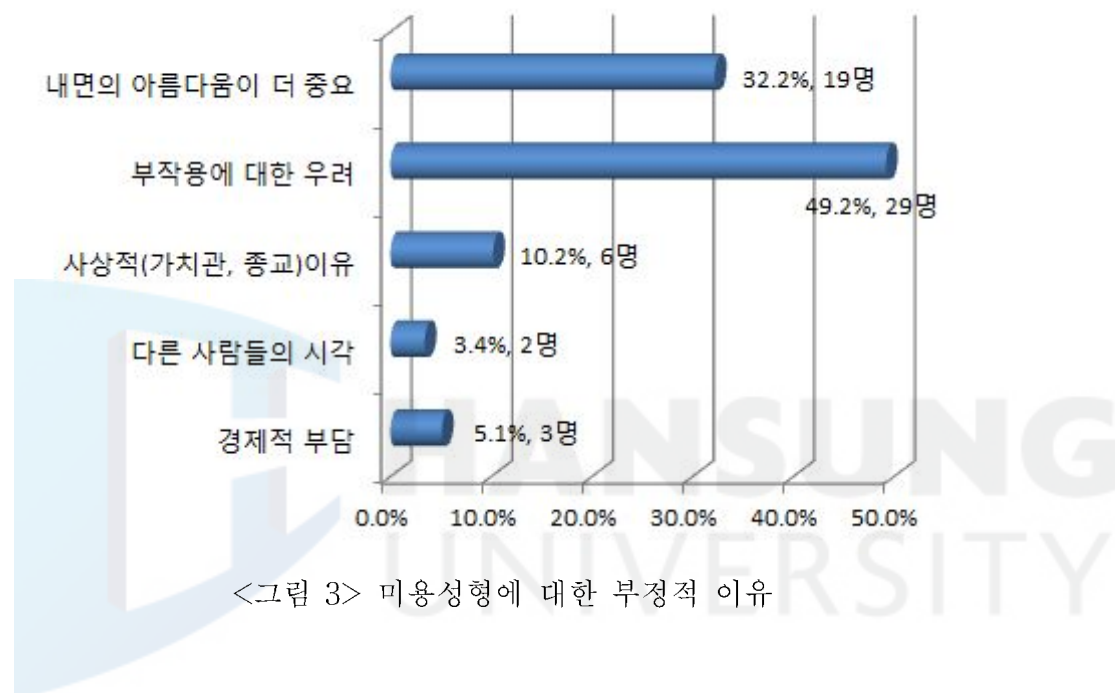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용성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자신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 57.9%(165명)로 가장 높았으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해소”가 24.6%(70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관상의 변화”가 7.4%(21명), “취업이나 직장생활의 유리한 수단”이 7.0%(20명), “이성과의 교제 혹은 결혼에 대한 유리한 수단”이 1.8%(5명)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 이유

3. 미용성형에 대한 부정적 이유

미용성형에 대한 부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용성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49.2%(29명)로 가장 높았으며,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가 32.2%(19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상적-가치관, 종교 이유”가 10.2%(6명), “경제적 부담”이 5.1%(3명),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3.4%(2명)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4.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미용성형 경험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는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표를 보면, 미용성형의 경험이 있는 경우의 79.0%(113명)가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5.6%(8명)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용성형의 경험이 없는 경우의 55.9%(171명)가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6.7%(84명)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미용성형의 경험이 있는 경우, 미용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른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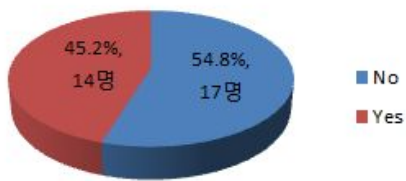
		미용성형경험		df	χ^2	p
		Yes	No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긍정	N	113	171	2	23.352 .000**
		기대빈도	90.4	193.6		
		%	79.0	55.9		
	보통	N	22	84		
		기대빈도	33.8	72.2		
		%	15.4	27.5		
	부정	N	8	51		
		기대빈도	18.8	40.2		
		%	5.6	16.7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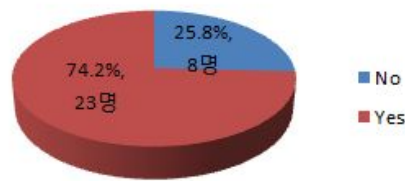
5. 병원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

병원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병원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에서는 레이저시술 74.2%(23명), 재생관리 58.1%(18명), 안면윤곽수술 45.2%(14명) 순으로 시술·관리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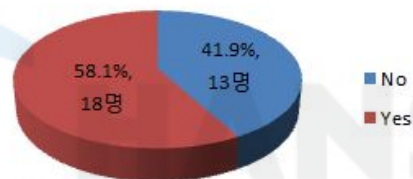
(a) 안면윤곽 수술(사각턱)



(b) 레이저 시술(모공, 탄력, 잡티, 기미)



(c)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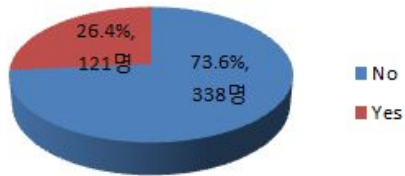


<그림 4> 병원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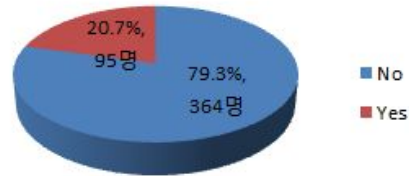
6.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디 관련 시술·관리에서는 복부와 다리부분이 각각 33.8%(155명), 34.0%(156명)의 비율로 가장 높은 시술·관리 의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팔, 가슴이 각각 26.4%(121명), 20.7%(95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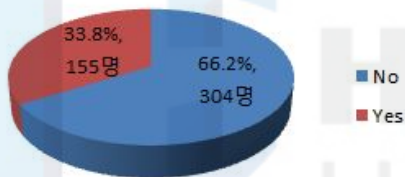
(a)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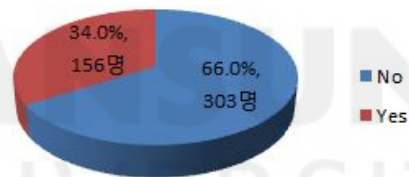
(b) 가슴



(c) 복부



(d) 다리



<그림 5> 병원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비교

제 3 절.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도

1. 성별, 연령, 직업, 수입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선호도 비교

피부미용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변수에 대한 피부미용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별의 경우 피부미용에 대한 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긍정적 여성이 57.6%(19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남성 긍정, 남성 보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직업과 수입의 경우 역시 피부미용에 대한 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직업의 경우, 기타를 제외한 주부의 긍정적 의견이 61.5%(24명)로 다음을 차지한다.

또한 수입의 경우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71.4%(80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우 부정적의 경우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피부미용에 대한 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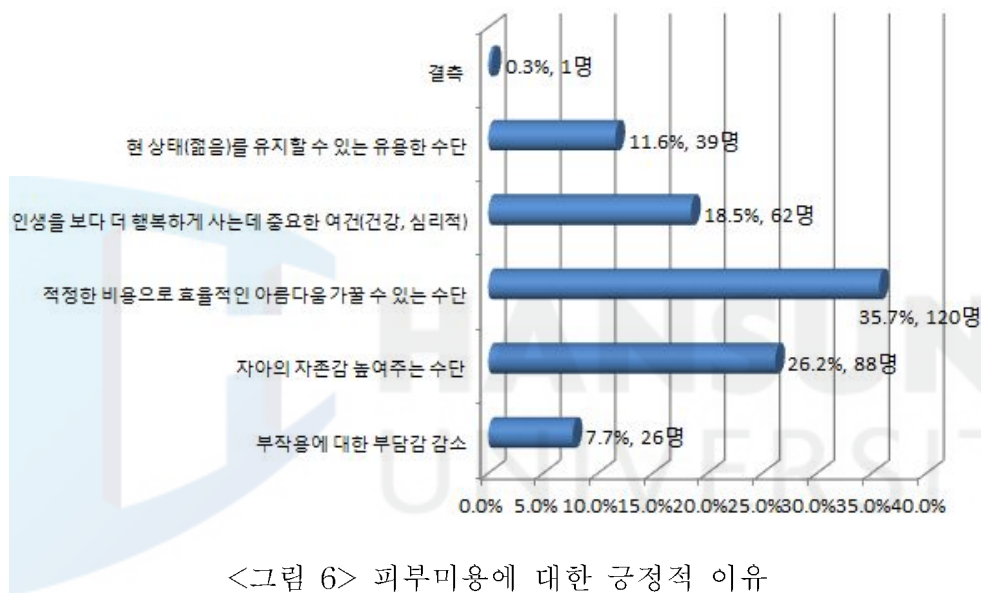
<표 4> 성별, 연령, 직업, 수입 변수에 대한 피부미용 인식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χ^2	p
성별	여성	N	89	190	37	13	1	45.68	.000**
		%	27.0	57.6	11.2	3.9	0.3		
	남성	N	7	50	36	4	2		
		%	7.1	50.5	36.4	4.0	2.0		
연령	10대	N	2	3	1	0	0	21.129	.174
		%	33.3	50.0	16.7	0.0	0.0		
	20대	N	58	139	50	5	1		
		%	22.9	54.9	19.8	2.0	0.4		
	30대	N	20	72	12	6	1		
		%	18.0	64.9	10.8	5.4	0.9		
	40대	N	13	18	8	5	1		
		%	28.9	40.0	17.8	11.1	2.2		
	50대이상	N	3	7	2	1	0		
		%	23.1	53.8	15.4	7.7	0.0		
직업	주부	N	9	24	3	3	0	42.405	.012*
		%	23.1	61.5	7.7	7.7	0.0		
	영업, 서비스직	N	9	18	4	3	0		
		%	26.5	52.9	11.8	8.8	0.0		
	자영업	N	5	6	0	2	0		
		%	38.5	46.2	0.0	15.4	0.0		
	학생	N	55	103	44	3	1		
		%	26.7	50.0	21.4	1.5	0.5		
	전문직	N	11	26	5	2	0		
		%	25.0	59.1	11.4	4.5	0.0		
	회사원	N	3	41	12	1	1		
		%	5.2	70.7	20.7	1.7	1.7		
	기타	N	4	22	5	3	0		
		%	11.8	64.7	14.7	8.8	0.0		
수입 (만원)	100 미만	N	63	113	41	8	1	31.349	.012*
		%	27.9	50.0	18.1	3.5	0.4		
	100-200 미만	N	12	80	15	4	1		
		%	10.7	71.4	13.4	3.6	0.9		
	200-300 미만	N	6	25	9	4	0		
		%	13.6	56.8	20.5	9.1	0.0		
	300-400 미만	N	4	12	3	0	0		
		%	21.1	63.2	15.8	0.0	0.0		
	400 이상	N	11	10	2	1	0		
		%	45.8	41.7	8.3	4.2	0.0		

* : p <.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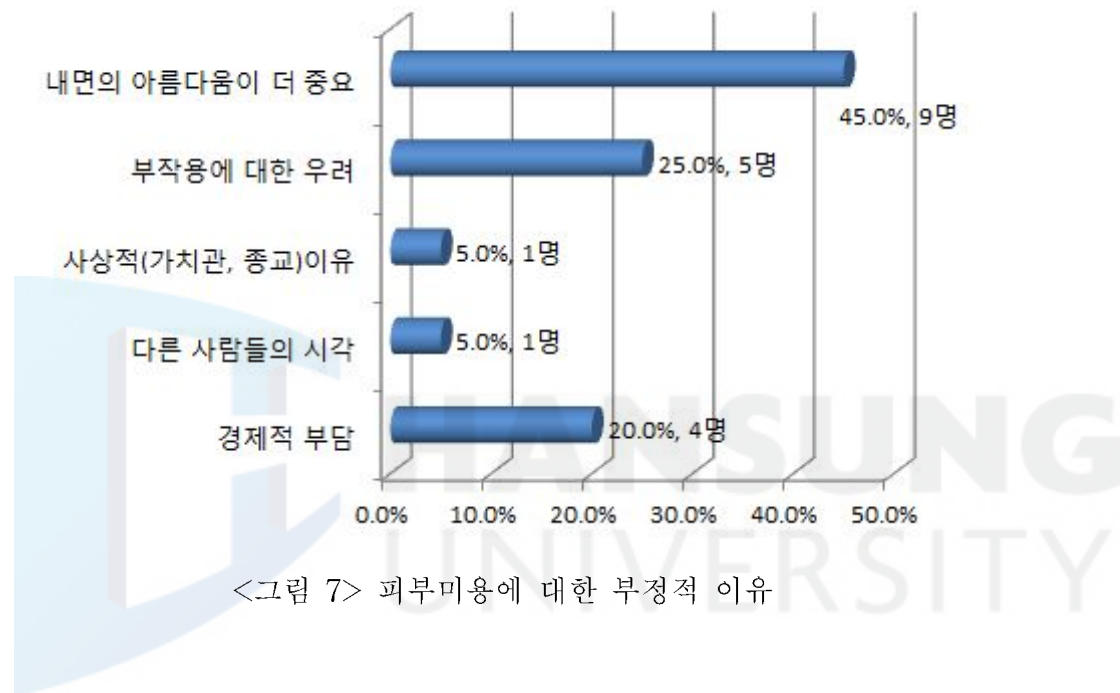
2. 피부미용에 대한 긍정적 이유

피부미용에 대한 긍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미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적정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수단”이 35.7% (129명)로 가장 높았으며, “자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이 26.2%(88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여건-건강, 심리적”이 18.5%(62명), “현 상태-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11.6%(39명),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감소”가 7.7%(26명)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3. 피부미용에 대한 부정적 이유

피부미용에 대한 부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미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가 45.0%(9명)로 가장 높았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25.0%(5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이 20.0%(4명), “다른 사람들의 시각” “사상적-가치관, 종교 이유”가 모두 5.0%(1명)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4. 피부미용 경험 유무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

피부미용 경험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는 피부미용 경험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부미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의 85.9%(201명)가 피부미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5.1%(12명)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피부미용의 경험이 없는 경우의 69.2%(135명)가 피부미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4.1%(8명)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피부미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 피부미용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피부미용경험 유무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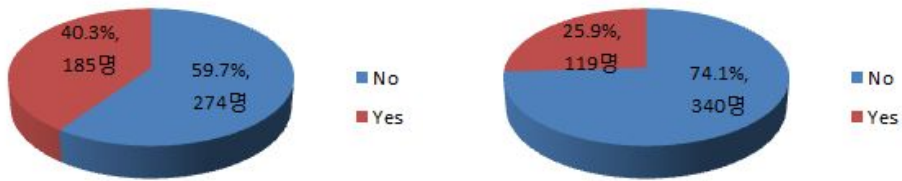
		피부미용경험		df	χ^2	p
		Yes	No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	긍정	빈도	201	135	2	23.578 .000**
		기대빈도	183.3	152.7		
		%	85.9	69.2		
	보통	빈도	21	52		
		기대빈도	39.8	33.2		
		%	9.0	26.7		
	부정	빈도	12	8		
		기대빈도	10.9	9.1		
		%	5.1	4.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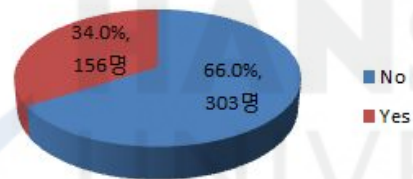
5.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기술·관리 의향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기술·관리 의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기술·관리에서는 피부 관리40.3%(185명), 재생관리25.9%(119명), 마사지34.0%(156명) 순으로 기술·관리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 피부관리(여드름, 미백, 재생, 탄력) (b) 마사지(안면윤곽개선)



(c)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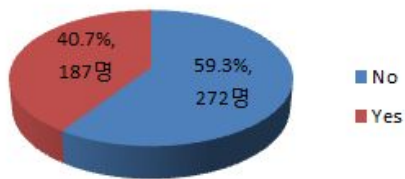


<그림 8>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얼굴관련 기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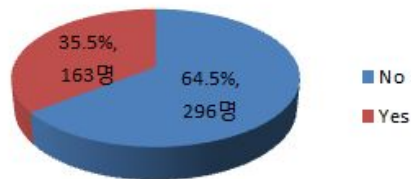
6.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9>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바디 관련 시술·관리에서도 미용성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복부와 다리부분에 대한 의향이 각각 54.5%(250명), 51.2%(235명)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팔, 가슴이 각각 40.7%(187명), 35.5%(163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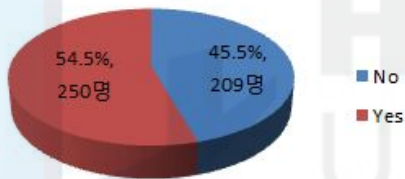
(a)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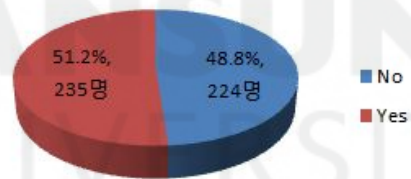
(b) 가슴



(c) 복부



(d)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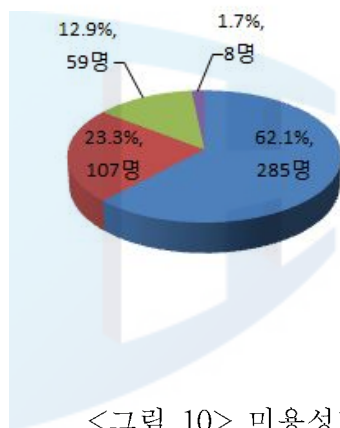
<그림 9>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바디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비교

제 4 절.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인식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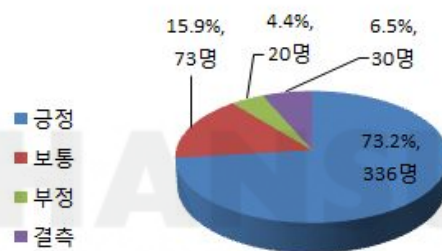
1.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절대적 선호도 비교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절대적 선호도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용성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62.1%(285명), 피부미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73.2%(336명)로 피부미용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미용성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피부미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각각 12.9%(59명), 4.4%(20명)로 미용성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미용성형



(b) 피부미용



<그림 10>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절대적 선호도 비교

2.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공통적인 긍정적 이유와 부정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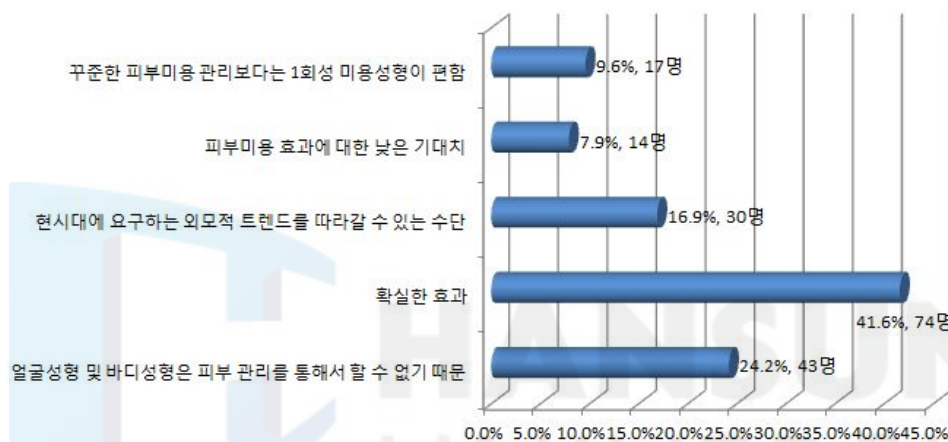
2절과 3절에서 소개한 빈도분석결과를 토대로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공통적인 긍정적 이유와 부정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용성형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적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2가지 항목은 “자신의 만족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수단 57.9%(165명)”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해소 24.6%(70명)”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적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2가지 항목은 “적정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수단 35.7%(120명)”과 “자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 26.2%(88명)”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들이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높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용성형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적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2가지 항목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49.2%(29명)”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 32.2%(19명)”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2가지 항목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 45.0%(9명)”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25.0%(5명)”로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공통적인 부정적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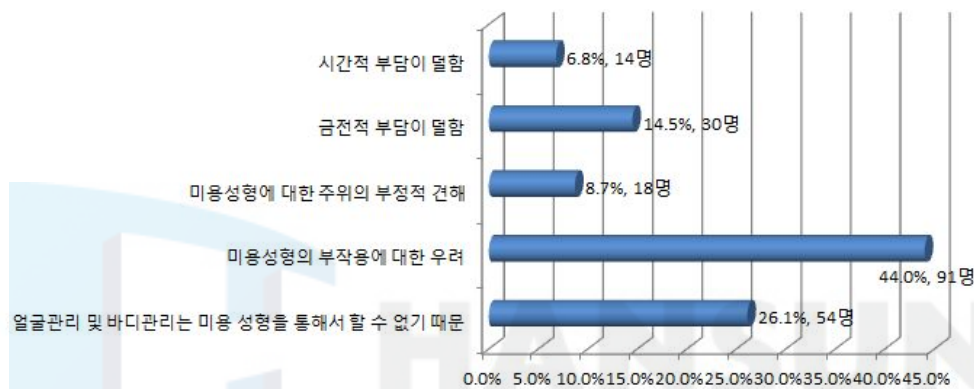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로 “확실한 효과”가 41.6%(74명)로 가장 높았으며, “얼굴성형 및 바디성형은 피부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이 24.2%(43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현시대에 요구하는 외모적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수단”이 16.9%(30명), “꾸준한 피부미용 관리보다는 1회성 미용성형이 편함”이 9.6%(17명), “피부미용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각각 7.9%(14명), 7.9%(14명)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4.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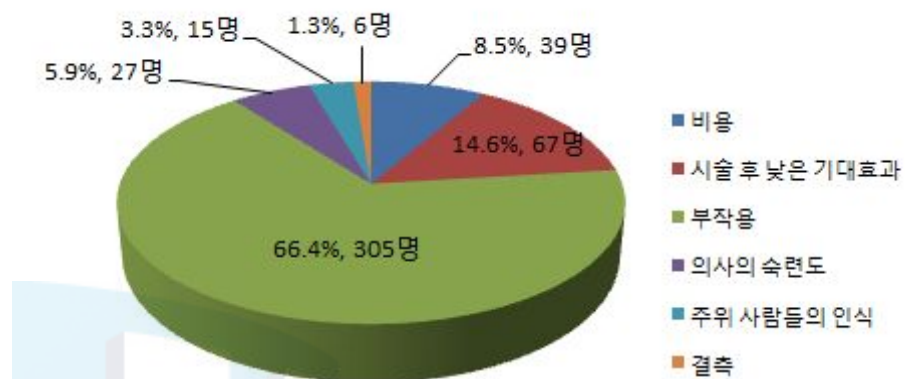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로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44.0%(91명)로 가장 높았으며, “얼굴성형 및 바디성형은 미용성형을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이 26.1%(54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금전적 부담이 덜함”이 14.5%(30명), “미용성형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견해”, “시간적 부담이 덜함”이 각각 8.7%(18명), 6.8%(14명)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

5. 미용성형 시술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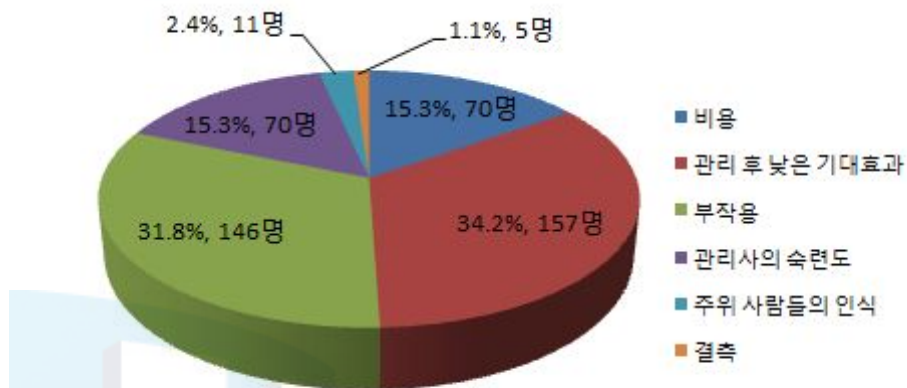
미용성형 시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용성형 시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부작용”이 66.4%(305명)로 가장 높았으며, “시술 후 낮은 기대효과”가 14.6%(67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용”이 8.5%(39명), “의사의 숙련도”가 5.9%(27명),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3.3%(15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13> 미용성형 시술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6.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관리 후 낮은 기대효과”가 34.2%(157명)로 가장 높았으며, “부작용”이 31.8%(146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용”, “관리사의 숙련도”가 모두 15.3%(70명),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2.4%(11명)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14>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제 5 절.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의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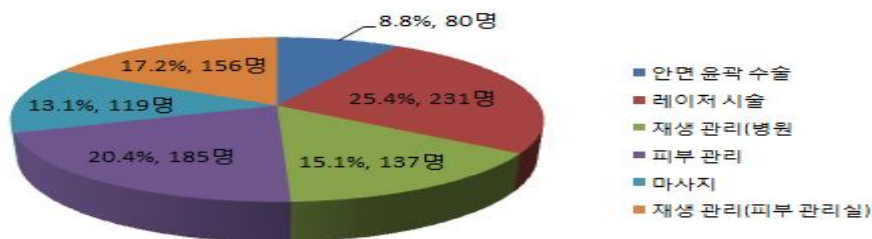
1.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라 시술·관리 의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수행하는 미용성형인 레이저 시술(모공, 탄력, 잡티, 기미)의 시술 의향이 25.4%(231명)로 가장 높았으며,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피부미용인 피부 관리(여드름, 미백, 재생, 탄력)와 재생 관리(성형 후 관리)가 각각 20.4%(185명), 17.2%(156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안면윤곽 수술(사각턱)의 경우 8.8%(20.5명)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얼굴 시술 종류	병원	안면윤곽수술	N 379	80	136.452	.000**
			% 20.5	8.8		
		레이저시술	N 228	231		
			% 12.4	25.4		
	피부 관리실	재생관리	N 322	137		
			% 17.4	15.1		
		피부관리	N 274	185		
			% 14.8	20.4		
		마사지	N 340	119		
			% 18.4	13.1		
		재생관리	N 303	156		
			% 16.4	17.2		

**p<.01



<그림 15>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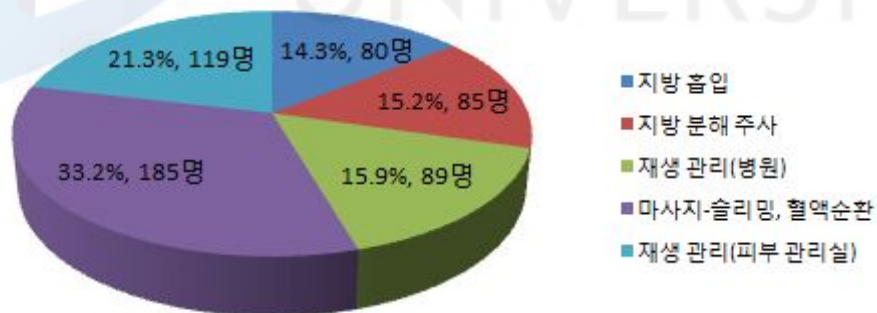
2. 팔 관련 기술 종류에 따른 기술·관리 의향

팔 관련 기술 종류에 따른 기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팔 관련 기술 종류에 따라 기술·관리 의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슬리밍 및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가 33.2%(185명)로 가장 높은 기술 의향을 보였으며, 피부 관리실에서 재생 관리가 21.3%(11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병원에서 수행하는 미용성형인 지방 흡입은 14.3%(80명)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팔 관련 기술 종류에 따른 기술·관리 의향

		기술·관리의향		χ^2	p
		No	Yes		
팔 기술 종류	병원	지방흡입	N 379 % 21.80	90.678	.000**
		지방분해주사	N 374 % 21.50		
		재생관리	N 370 % 21.30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N 274 % 15.80		
	피부 관리실	재생관리	N 340 % 19.60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N 274 % 15.80		
		재생관리	N 340 % 19.60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N 274 % 15.80		

** : $p < .01$



<그림 16> 팔 관련 기술 종류에 따른 기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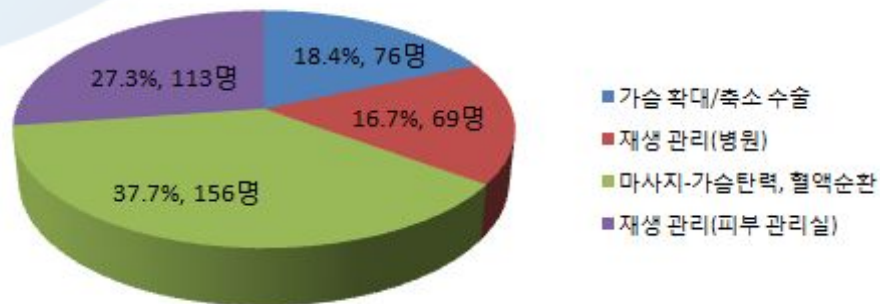
3.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라 시술·관리 의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피부 관리실에서의 가슴탄력 및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의 비중이 37.7%(156명)로 가장 높았다. 피부 관리실에서의 재생 관리는 27.3%(113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병원에서 수행하는 가슴 확대/축소 수술과 재생 관리는 각각 18.4%(76명), 16.7%(69명)로 피부 관리실에서의 가슴 관련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8>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가슴 시술 종류	병원	가슴확대/축소수술	N	383	76	59.792	.000**	
			%	26.9	18.4			
		재생관리	N	390	69			
			%	27.4	16.7			
	피부 관리실	마사지(가슴탄력, 혈액순환)	N	303	156			
			%	21.3	37.7			
				N	346			113
				%	24.3			27.3

**: $p < .01$



<그림 17>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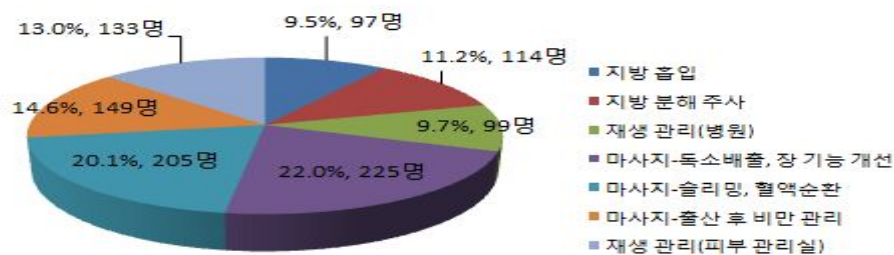
4.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라 시술·관리 의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부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독소배출 및 장 기능 개선을 위한 마사지가 22.0%(22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슬리밍 및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와 출산 후 비만 관리를 위한 마사지가 각각 20.1%(205명), 14.6%(14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병원에서 수행하는 지방 흡입은 9.5%(97명)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복부 시술 종류	병원	지방흡입	N 362 % 16.5	156.027	.000**
		지방분해주사	N 345 % 15.7		
		재생관리	N 360 % 16.4		
		마사지(독소배출, 장기능개선)	N 234 % 10.7		
	피부 관리 실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N 254 % 11.6		
		마사지(출산후비만 관리)	N 310 % 14.1		
		재생관리	N 326 % 14.9		

**p<.01



<그림 18>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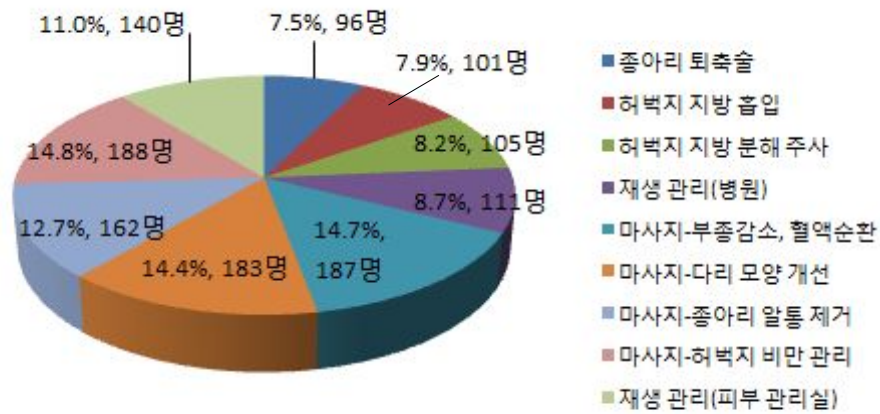
5.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보논바와 같이 다리 관련 시술·관리 종류에 따라 시술 의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리 관련 시술 중에서도 허벅지 비만 관리를 위한 마사지가 14.8%(18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종감소 및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가 14.7%(187명), 다리 모양 개선을 위한 마사지가 14.4%(183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종아리 퇴축술과 허벅지 지방 흡입은 각각 7.5%(96명), 7.9%(101명)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0>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다리 시술 종류	종아리퇴축술	N	363	96	126.207	.000**	
		%	12.7	7.5			
	허벅지지방흡입	N	358	101			
		%	12.5	7.9			
	허벅지지방분해주사	N	354	105			
		%	12.4	8.2			
	재생관리	N	348	111			
		%	12.2	8.7			
	마사지(부종감소, 혈액순환)	N	272	187			
		%	9.5	14.7			
	마사지(다리모양개 선)	N	276	183			
		%	9.7	14.4			
	피부 관리실	마사지(종아리알통 제거)	N	297			162
			%	10.4			12.7
	마사지(허벅지비만 관리)	N	271	188			
		%	9.5	14.8			
재생관리	N	319	140				
	%	11.2	11.0				

**: $p < .01$



<그림 19>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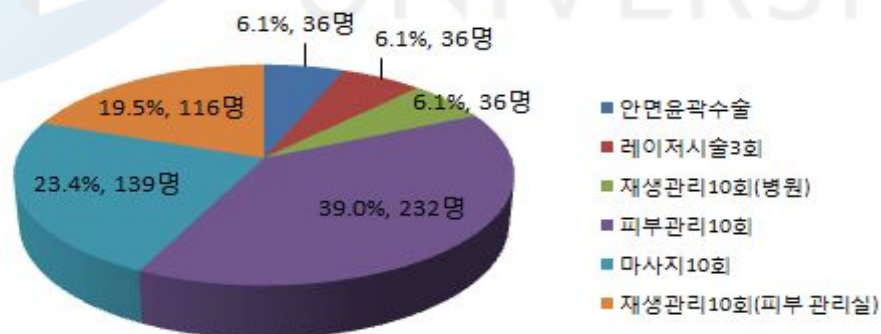
6. 비용을 고려한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용을 고려한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얼굴부위의 병원과 피부 관리실에서의 시술·관리 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병원의 경우 모든 시술에 있어 시술 의향이 없다가 19.6%(423명)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피부 관리실의 피부 관리10회의 경우에는 39.0%(232명)로 관리 의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1> 비용을 고려한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소요 비용 (만원)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병원	안면윤곽수술	400	N 423 % 19.6	36 6.1	405.153	.000**
	레이저시술3회	150	N 423 % 19.6	36 6.1		
	재생관리10회	70	N 423 % 19.6	36 6.1		
피부 관리실	피부관리10회	50	N 227 % 10.5	232 39.0		
	마사지10회	60	N 320 % 14.8	139 23.4		
	재생관리10회	50	N 343 % 15.9	116 19.5		

** : p < .01



<그림 20> 비용을 고려한 얼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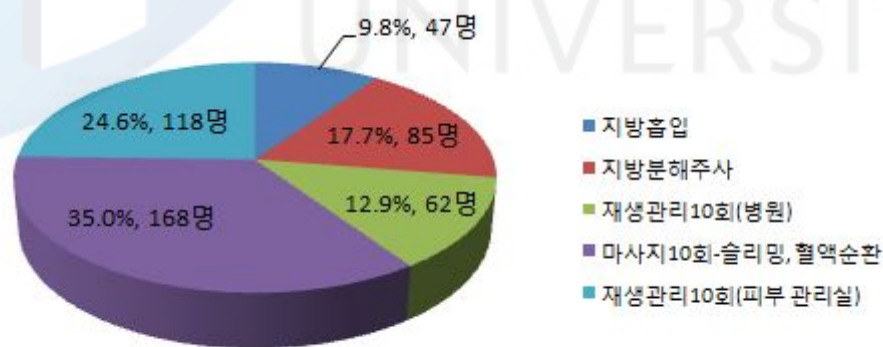
7.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서 보는바와 같이 팔부위의 병원과 피부 관리실에서의 시술·관리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의 지방흡입 시술 의향이 없다가 22.7%(41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피부 관리실의 마사지 10회(슬리밍, 혈액순환)가 35.0%(168명)로 관리 의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2>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소요 비용 (만원)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병원	지방흡입	200	N 412 % 22.7	47 9.8	122.329	.000**
	지방분해주사	40	N 374 % 20.6	85 17.7		
	재생관리10회	30	N 397 % 21.9	62 12.9		
피부 관리실	마사지10회 (슬리밍, 혈액순환)	20	N 291 % 16.0	168 35.0		
	재생관리10회	20	N 341 % 18.8	118 24.6		

**p<.01



<그림 21> 비용을 고려한 팔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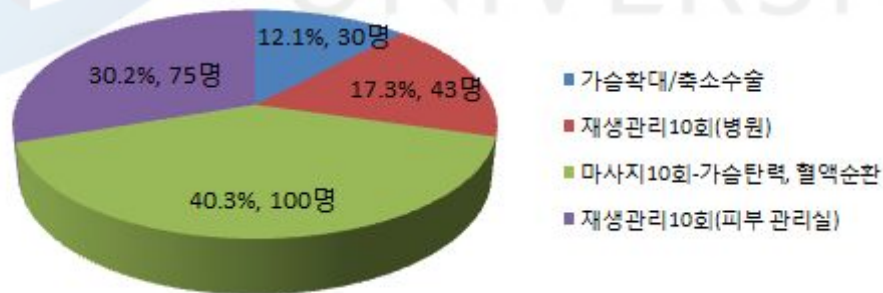
8.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에서 보논바와 같이 가슴 부위의 병원과 피부 관리실에서 시술·관리 의향에 대한 선호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병원-가슴확대/축소수술의 경우 시술의향이 없다는 27.0%(42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마사지 10회(가슴탄력, 혈액순환)가 40.3%(100명)로 관리 의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3>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소요 비용 (만원)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병원	가슴확대/축소수술	500	N	429	30	55.749	.000**
			%	27.0	12.1		
	재생관리10회	50	N	416	43		
			%	26.2	17.3		
피부 관리실	마사지10회 (가슴탄력, 혈액순환)	40	N	359	100		
			%	22.6	40.3		
	재생관리10회	40	N	384	75		
			%	24.2	30.2		

** : p < .01



<그림 22> 비용을 고려한 가슴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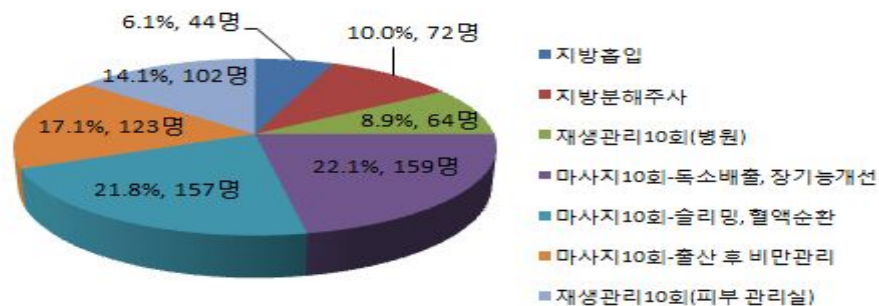
9.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부 부위에 있어 병원과 피부 관리실에서의 시술·관리 의향에 대한 선호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의 경우 지방흡입 의향이 없다가 16.7%(41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마사지 10회(독소배출, 장기능 개선)가 22.1%(159명)로 관리 의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4>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소요 비용 (만원)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병원	지방흡입	400	N 415 % 16.7	44 6.1	155.381	.000**
	지방 분해주사	80	N 387 % 15.5	72 10.0		
피부 관리실	재생관리10회	50	N 395 % 15.9	64 8.9		
	마사지10회 (독소배출, 장기능 개선)	40	N 300 % 12.0	159 22.1		
	마사지 10회 (슬리밍, 혈액순환)	40	N 302 % 12.1	157 21.8		
	마사지10회 (출산 후 비만관리)	41	N 336 % 13.5	123 17.1		
	재생관리10회	40	N 357 % 14.3	102 14.1		

**p<.01



<그림 23> 비용을 고려한 복부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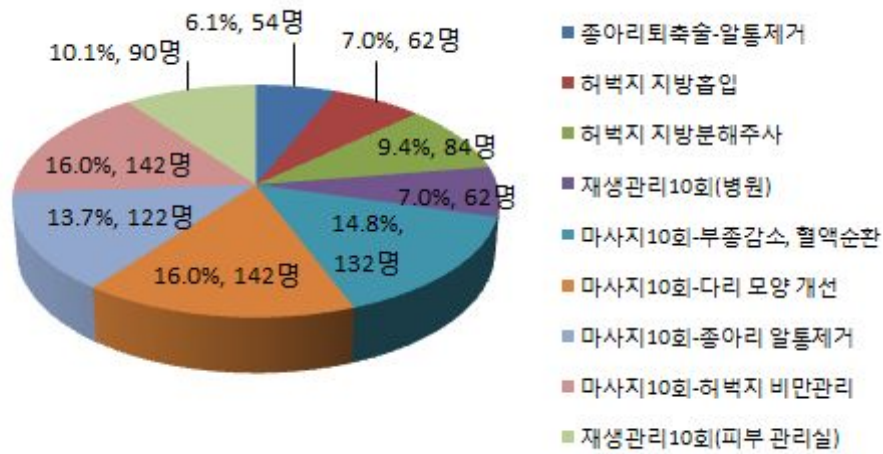
10.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리부위에 있어 병원과 피부 관리실에서의 시술·관리 의향에 대한 선호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종아리 퇴축술(알통제거)에 대한 시술의향이 없다가 12.5%(40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종류의 마사지10회(다리모양 개선, 허벅지 비만관리)가 동일한 비중인 16.0%(142명)로 관리 의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5>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소요 비용 (만원)	시술·관리의향		χ^2	p
		No	Yes		
병원	종아리퇴축술 (알통제거)	N	405	54	133.714 .000**
		%	12.5	6.1	
	허벅지 지방흡입	N	397	62	
		%	12.2	7.0	
	허벅지 지방분해주사	N	375	84	
		%	11.6	9.4	
피부 관리실	재생관리10회	N	397	62	
		%	12.2	7.0	
	마사지10회 (부종감소, 혈액순환)	N	327	132	
		%	10.1	14.8	
	마사지10회 (다리 모양 개선)	N	317	142	
		%	9.8	16.0	
	마사지10회 (종아리 알통제거)	N	337	122	
		%	10.4	13.7	
	마사지10회 (허벅지 비만관리)	N	317	142	
		%	9.8	16.0	
	재생관리10회	N	369	90	
		%	11.4	10.1	

**;p<.01



<그림 24> 비용을 고려한 다리 관련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관리 의향 비교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미용성형과 피부미용간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단점 및 주요 정보를 소개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인식도 및 개인별 성향을 파악하여 피부미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설문지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al Data Editor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태도 및 선호도, 분야별 긍정적/부정적 이유 및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와 우려되는 사항 등을 빈도 분석하였다. 또한 부위별 시술 종류에 따른 시술 의향 차이와 선호도, 시술비용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의향 변화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주로 여성이 77.6%(356명)로 많았고, 전체 연구대상자 중 20대가 58.6%(269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자의 70%이상이 긍정적 또는 보통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긍정의 이유로는 자신감 만족의 상승이 57.9%(165명) 가장 높았고, 부정의 이유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49.2%(29명)가 가장 많아 연구 가설 1이 지지 되었다.
3.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으로는 조사대상자의 90%이상이 긍정적 또는 보통의 선호도를 보여 연구 가설 1이 지지 되었으며, 긍정의 이유로는 적절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수단 35.7%(120명)을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이유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함 32.2%(19명)이 가장 높았다.
4.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 경험이 있을 경우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시술 및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연구 가설 2가 지지 되었다.
5. 미용성형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41.6%(74명)를 , 피부미용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이유는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44.0%(91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성형 시술과 피부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각각 부작용 66.4%(305명)과 관리 후 낮은 기대효과 34.2%(157명)로 나타났다.

6. 부위별 시술의향은, 얼굴과 관련해서 레이저 시술 25.4%(231명)과 피부 관리 20.4%(185명)가 높은 시술 의향을 보였고 안면윤곽 수술 8.8%(20.5명)에 대한 의향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가설 3의 “레이저 후 재생 피부 관리” 보다 “레이저 시술 및 피부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져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7. 부위별 시술의향의 경우, 바디(팔, 가슴, 복부, 다리)와 관련해서는 슬리밍, 가슴탄력, 비만관리, 혈액순환, 독소배출, 장 기능 개선을 위한 마사지가 가장 높은 시술 의향을 보였고, 가슴/확대 축소 수술 18.4%(76명) 및 지방 흡입과 관련된 시술들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결과는 연구 가설 4를 지지한다.
8.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얼굴 관련 시술에서는 ‘병원 시술의향이 없다’가 19.6%(423명),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가 39.0%(232명)의 관리 의향을 보였고, 바디관련 시술에서는 두 분야 모두 시술의향이 낮았지만 피부관리실의 마사지(슬리밍, 가슴탄력, 비만관리, 혈액순환, 독소배출, 장 기능 개선)가 비교적 높은 관리의향을 보여 연구 가설 5가 지지 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피부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분야 모두 자신의 만족감을 상승시키고,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시술·관리 후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저 시술과 같은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시술 흔적이 비교적 남

지 않는 시술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신체에 큰 시술 흔적을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용성형 차원의 시술들은 낮은 선호도를 가졌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관리나 마사지와 같은 보다 안전하며 부작용이 낮은 피부미용 시술·관리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형 후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재생 관리는 병원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술 목적에 따른 시술 장소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에서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시술 및 관리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피부관리실에서 수행하는 각종관리가 병원에서 수행하는 각종시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부담감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해당분야를 통한 관리의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 후, 피부미용 분야에 대한 적절한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피부미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리 시연회를 개최하여 피부미용의 긍정적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하고, 피부미용 시술 후 마사지의 효용성(외모 개선, 건강관리, 깨끗한 이미지, 젊음유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레이저 시술 후 재생관리를 피부 관리실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마사지 관리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지방흡입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술을 대체하기 위해 피부미용의 비만관리 분야의 강점(혈액순환, 안전성, 신체 신진대사 증진, 신경이완, 스트레스완화 등)을 부각시키고 확실한 효과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관리와 관련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미를 추구하는 유사업종 간의 선호도를 비교 분석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미용 산업에서 미용성형 및 피부미

용의 중점 육성 분야를 판단하기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각 해당 분야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 및 산업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조사대상이 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확대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업간의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계영철, 「피부질환에 대한 레이저 치료」, 대한 피부과학회지, Vol. 41, pp. 1-6, 2002.
- 김명숙, 『피부관리학』, 현문사, 2003..
- 김문주, 「피부관리 종사자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란,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복희, 남철현,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 15, No. 1, pp. 1-30, 1998.
- 김봉인, 장서지, 「미용 성형수술을 통한 미적 관점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Vol. 21, pp. 163-177, 2010.
- 김종임, 「메디컬 스킨케어의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홍, 이영익, 「마라톤 참가자의 스포츠 마사지 이용실태 조사」, 코칭능력개발지, Vol. 11, No. 4, pp. 201-209, 2009.
- 모정희, 송미라, 「피부관리방식으로서의 아로마테라피의 활용실태 및 시행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 4, No. 4, pp. 33-44, 2007.
- 박연옥,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배근혜, 「Botulinum toxin A(보톡스)에 의한 얼굴주름 개선의 임상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진영, 「메디컬 스킨케어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엄현신,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원윤경 외 1인, 『피부미용기기학』, 훈민사, 2006.

- 윤영숙, 「여대생의 비만관리가 체지방 감소에 미치는 효과」, 피부미용학회지, Vol. 6, pp. 165-187, 2003.
- 이미희, 「여성 미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민영,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성내, 『피부과학』, 군자출판사, 2002.
- 이현진, 「피부비만관리실 고객의 비만관리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임인숙, 「미용성형공화국의 고지되지 않는 위험」, 사회와 역사, Vol. 88, pp. 39-78, 2010.
- 임인숙, 「외모차별 사회의 성형 경험과 의향」, 한국여성학, Vol. 20, No. 1, pp. 95-122, 2004.
- 장영아, 「한방 피부관리실의 소비자 이용행태와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차영애 외 4인, 『피부관리학』, 훈민사, 2001.
- 차영애, 「건강증진을 위한 경락 건강체조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 Vol. 7, No. 1, pp. 157-171, 2001.
- Nancy Etcoff, 이기문 역, 『가장 예쁜 유전자만 살아남는다』, 살림출판사, 1999.
- Reed, J. T., Joshph, A. K. and Bridensine, J. B., 「A comparison of the silk touch carbon dioxide laser with a medium depth chemical peel」, Treatment of periorbital wrinkles, Vol. 23, pp. 643-648, 1997.

기타자료

- 아이콘성형외과, <http://www.iconps.co.kr>.
- 오로라 성형외과, <http://www.auroraclinic.co.kr>.
- 위키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 한국의료관광협회, 문화관광부허가 제 2008-54호.
- 한국일보, 2003.1.20, 2003.4.19.

【부 록】

설 문 지

본 설문에 기재된 사항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사적 비밀이 보장되어
학문적인 통계자료로만 이용됩니다.

“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 방향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에스테틱 석사과정에 있는 변선주입니다.
본 설문지는 성형 vs. 피부미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피부미용의 발전 방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설문 조사의 내용은 사적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문적인 통계자료로만 사용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사려깊은 답변이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3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에스테틱 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강경호
연구자 : 변선주

※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결혼 유무는?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5. 귀하의 교육 정도는?

-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 재학/졸업 ④ 4년제대학 재학/졸업 ⑤ 대학원이상

6. 귀하의 직업은?

- ① 주부 ② 영업, 서비스직 ③ 자영업 ④ 학생 ⑤ 전문직 ⑥ 회사원 ⑦ 기타

7. 귀하의 수입 정도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8.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에 관한 귀하의 주 정보 수단은?

- ① 인터넷 ② 잡지 및 TV광고 ③ 친구, 친지의 경험 ④ 병원 또는 피부관리실 ⑤ 기타

9. 귀하께서는 피부 및 비만 관리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병원을 이용한 미용성형 ② 전문피부관리실을 이용한 피부, 비만관리
③ 식이요법 ④ 운동 ⑤ 관심 없다.

※ 성형 및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도 질문입니다.

1. 미(美)에 대한 관심도는?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1. 귀하는 미용성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3-1번으로)

2-2. 귀하가 최근 경험한 미용성형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3. 불만족스런 미용성형에 대한 보상(심리적, 물질적)은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다.

3-1. (2-1번에서 없다고 답하신 분만 체크해 주세요.) 미용성형에 대한 생각은?

(미용성형이란? 미용을 위한 병원에서 시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쌍꺼풀, 코높임 등의 얼굴성형과 가슴, 복부 등의 신체부위 성형, 지방흡입, 기미, 주근깨, 박피 레이저, 기타 주사요법 등을 모두를 포함한다.)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3-2. 긍정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 ①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② 자신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③ 이성을 만나거나 결혼을 택하는데 있어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④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⑤ 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좋은 인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3. 부정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 ① 경제적 부담 ② 다른 사람들의 시각 ③ 사상적(가치관, 종교)이유
④ 부작용에 대한 우려 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4-1. 귀하는 피부미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5-1번으로)

4-2. 귀하가 최근 경험한 피부미용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4-3. 불만족스런 피부미용에 대한 보상(심리적, 물질적)은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다.

5-1. (4-1번에서 없다고 답하신 분만 체크해 주세요.) 피부미용에 대한 생각은?

(피부미용이란? 병원에서의 성형수술 후 관리를 위한 마사지 및 피부관리실에서 행하는 모든 관리방법을 의미하며 피부 관리, 체형 관리, 왁싱(제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5-2. 5-1번에서 긍정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 ①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② 자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③ 적절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④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요건(건강, 심리적)이기 때문에
⑤ 현상태(젊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5-3. 5-1번에서 부정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 ① 경제적 부담 ② 다른 사람들의 시각 ③ 사상적(가치관, 종교) 이유
④ 부작용에 대한 우려 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 만약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가 성형을 받는다면 귀하의 생각은?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7. 만약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가 피부관리를 받는다면 귀하의 생각은?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8-1. 다음 예시 중 굳이 하나만 선택해서 시술/관리를 받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미용성형을 통한 얼굴성형(눈, 코, 입 등)
- ② 미용성형을 통한 바디성형(지방흡입, 주사, 가슴 등)
- ③ 피부관리를 통한 얼굴관리(필링, 재생, 마사지 등)
- ④ 피부관리를 통한 바디관리(복부, 다리, 비만관리 등)
- ⑤ 미용성형을 통한 얼굴관리(레이저시술, 박피, 프락셀 등)

8-2.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할 때 귀하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 ① 시술/관리 부위 ② 시술/관리 비용 ③ 시술/관리 부작용
- ④ 본인이 경험한 시술/관리의 만족감 ⑤ 관련 분야의 명성
- ⑥ 유행 ⑦ 사회적 시선 ⑧ 친구나 가족의 추천

8-3. 8-1번에서 미용성형을 선택하셨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 ① 얼굴성형 및 바디성형은 피부관리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 ③ 현시대에 요구하는 외모적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 ④ 피부미용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치 때문에
- ⑤ 꾸준한 피부미용 관리보다는 1회성 미용성형이 편해서

8-4. 8-1번에서 피부미용을 선택하셨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 ① 얼굴관리 및 바디관리는 미용성형을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 ③ 미용성형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견해 때문에
- ④ 금전적 부담이 덜해서
- ⑤ 시간적 부담이 덜해서

9. 귀하가 미용성형을 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시술은?

- ① 눈부위(쌍꺼풀, 안검하수, 앞트임, 뒤트임 등)
- ② 동안수술(쁘띠성형, 보톡스, 필러 등) ③ 코부위 ④ 양악수술(사각턱)
- ⑤ 지방이식 및 흡입(팔, 복부, 가슴, 힙 등)

10. 귀하가 피부관리를 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 ① 미용성형 시술 후 재생관리 ② 필링 ③ 얼굴 관리 ④ 체형 비만관리 ⑤ 제모

11. 미용성형의 효과, 부작용, 비용 등에 대한 귀하의 지식도는 어느정도입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2. 미용성형의 전반적인 시술비용에 대한 생각은?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부적절하다. ⑤ 매우 부적절하다.

13. 미용성형 시술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 ① 비용 ② 시술 후 낮은 기대효과 ③ 부작용
- ④ 의사의 숙련도 ⑤ 주위 사람들의 인식

14. 피부미용의 효과, 부작용, 비용 등에 대한 귀하의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5. 피부미용의 전반적인 관리비용에 대한 생각은?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부적절하다. ⑤ 매우 부적절하다.

16. 피부 미용 관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 ① 비용 ② 관리 후 낮은 기대효과 ③ 부작용
- ④ 관리사의 숙련도 ⑤ 주위 사람들의 인식

17. 다음 표는 병원에서 수행하는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위별 시술/관리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하며 시술/관리경험이 없으신 분은 만족도 체크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위	세부내용	시술/관리 경험	만족도
얼굴	안면윤곽 수술(사각턱)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레이저 시술(모공, 탄력, 잡티, 기미)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팔	지방흡입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지방분해주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가슴	가슴 확대/축소 수술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복부	지방흡입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지방분해주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다리	종아리 퇴축술(알통 제거)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허벅지 지방흡입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허벅지 지방분해주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기타	레이저 제모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18. 다음 표는 피부관리실에서 수행하는 피부미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위별 관리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하며 관리경험이 없으신 분은 만족도 체크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위	세부내용	관리경험	만족도
얼굴	피부관리(여드름, 미백, 재생, 탄력)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마사지(안면윤곽 개선)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팔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가슴	마사지(가슴탄력, 혈액순환)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복부	마사지(독소배출, 장기능 개선)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마사지(출산 후 비만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다리	마사지(부종감소, 혈액순환)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마사지(다리 모양 개선)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마사지(종아리 알통제거)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마사지(허벅지 비만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기타	왁싱 제모	(유 무)	①만족 ②보통 ③불만족

19. 귀하께서 병원에서 수행하는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부위	세부내용	시술/관리의향
얼굴	안면윤곽 수술(사각턱)	(유 무)
	레이저 시술(모공, 탄력, 잡티, 기미)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팔	지방흡입	(유 무)
	지방분해주사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가슴	가슴 확대/축소 수술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복부	지방흡입	(유 무)
	지방분해주사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다리	종아리 퇴축술(알통 제거)	(유 무)
	허벅지 지방흡입	(유 무)
	허벅지 지방분해주사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기타	레이저 제모	(유 무)

20. 귀하께서 피부관리실에서 수행하는 피부미용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위별 관리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부위	세부내용	관리의향
얼굴	피부관리(여드름, 미백, 재생, 탄력)	(유 무)
	마사지(안면윤곽 개선)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팔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가슴	마사지(가슴탄력, 혈액순환)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복부	마사지(독소배출, 장기능 개선)	(유 무)
	마사지(슬리밍, 혈액순환)	(유 무)
	마사지(출산 후 비만관리)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다리	마사지(부종감소, 혈액순환)	(유 무)
	마사지(다리 모양 개선)	(유 무)
	마사지(종아리 알통제거)	(유 무)
	마사지(허벅지 비만관리)	(유 무)
	재생관리(성형 후 관리)	(유 무)
기타	완성 제모	(유 무)

21. 귀하께서 다음표의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요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부위별 시술/관리 의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소요비용은 상대적인 값임)

부위	시술/관리장소	세부내용	소요비용(만원)	시술/관리의향
얼굴	병원	안면윤곽 수술(사각턱)	400	(유 무)
		레이저 시술 3회(모공, 탄력, 잡티, 기미)	15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70	(유 무)
	피부관리실	피부관리 10회(여드름, 미백, 재생, 탄력)	50	(유 무)
		마사지 10회(안면윤곽 개선)	6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50	(유 무)
팔	병원	지방흡입	200	(유 무)
		지방분해주사	4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30	(유 무)
	피부관리실	마사지 10회(슬리밍, 혈액순환)	2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20	(유 무)
가슴	병원	가슴 확대/축소 수술	50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50	(유 무)
	피부관리실	마사지 10회(가슴탄력, 혈액순환)	4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40	(유 무)
복부	병원	지방흡입	400	(유 무)
		지방분해주사	8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50	(유 무)
	피부관리실	마사지 10회(독소배출, 장기능 개선)	40	(유 무)
		마사지 10회(슬리밍, 혈액순환)	40	(유 무)
		마사지 10회(출산 후 비만관리)	4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40	(유 무)
다리	병원	종아리 퇴축술(알통 제거)	150	(유 무)
		허벅지 지방흡입	200	(유 무)
		허벅지 지방 분해주사	8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70	(유 무)
	피부관리실	마사지 10회(부종감소, 혈액순환)	40	(유 무)
		마사지 10회(다리 모양 개선)	40	(유 무)
		마사지 10회(종아리 알통제거)	40	(유 무)
		마사지 10회(허벅지 비만관리)	40	(유 무)
		재생관리 10회(성형 후 관리)	50	(유 무)
기타	병원	레이저 제모	15	(유 무)
	피부관리실	와싱 제모	3	(유 무)

*** 지금까지 본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총 41문항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 of Skin Care through the Comparison of Usefulness and Recogni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Byun Sun Ju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provides modern people with an opportunity to change their appearance, and they receive various cosmetic plastic surgeries and skin cares for confidence improvement and success in society. However, they have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low recognition of side effects, resulting in physical side effects and excessive spending. In addition, kinds and effects of skin cares are hardly regarded positive and the prices are set without considering users' financial situations, which hinders active development in skin care fields.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imed to look into future directions for skin care by introduc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and major information and examining recogni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and individual tendency through a survey. This study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of total 500 men and women in Gyeongbuk for 14 days from February 15 to 28, 2011 and by supplementing and reviewing the results, conducted the actual survey from March 1 to 31,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out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by using PASW Statistical Data Editor (SPSS v. 18.0).

Survey subjects who showed positive or average preference for skin care were more than 70% and 90% respectively. The relatively positive reason of plastic surgery is that the respondents could get certain effects(41.6%, 74 subjects). The relatively positive reason of skin care is that they were worried about side effects(44.0%, 91). What they were most worried about is side effects (66.4%, 305) and low expectation effects(34.2%, 157). A survey on intention to receive a surgery according to body parts showed high intention in laser surgery for face(25.4%, 231) and skin care(20.4%, 185) but low facial contouring surgery(8.8%, 20.5). With respect to body(arms, breast, belly, legs), slimming, elastic breast, obesity care, blood circulation, detox, and improvement in intestinal functions showed high intention while breast enlargement and reduction operations showed low percentage(18.4%, 76).s

Through the findings, we found out that recogni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skin care is positive and both fields are regarded as a way to improve confidence and appearance. Worries about side effects and low expectation about effects of surgery and skin care are negative factors. Also, people prefer simple and efficient surgeries with a rare scar such as laser surgery. However, they have low preference for surgeries leaving a relatively big scar and side effects, and they rather prefer safe surgeries with less side effects such as skin care and massage that give consumers various effects through constant care.

Therefore, we have to develop customized skin care services by considering consumers' different situations and opening a demonstration about skin care to secure consumers' positive recognition of skin care. In addition, it needs to promote usefulness of massage after skin care and cosmetic plastic surgery(appearance improvement, health care, clean image, keeping of youth) and cultivate diverse massage care fields. To replace side effects including that of lipo suction, various clinical care and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to highlight advantages(blood circulation, safety, metabolism increase, nerve relaxation, stress reduction, etc) of obesity care of skin care and provide certain effects.

Key Words : Cosmetic Plastic Surgery, Skin Care, Laser treatment, Liposuction, Massage, Repair treatment

